

고성신문 8면은 주별로 돌아가면서 여성, 노인, 청소년, 종교 등 4개 분야의 기획기사를 실습니다. <여당당>은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당찬 활약을 펼치는 고성 여성들의 이야기, <노년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 <더 소울(The Soul)>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밑줄이 되고 있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1318

청소년NEWS

미래의 동량 청소년들의 희망을 담는다



1318. 1318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에너지가 살아숨쉬는 공간이다.

“13~18세의 청소년은 ‘학생’의 신분이면서, 질풍노도의 삶을 사는 지역의 미래다”

숨겨왔던 ‘끼’ 아낌없는 발산에 ‘환호’

대진중고 제10회 해송제 이틀간 열려 ... 학부모들도 출연 “세대차이 못 느껴요”

“우리들의 댄스, 노래 실력이 연예인 뺄치지 않나요?”

“평소 방과후 활동, 교과 활동 등으로 익힌 저희들의 작품, 공연을 준비했어요.” “저물어가는 가을 해송제에 오셔서 함께 호흡해봐요.”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며 차가운 기운이 몸을 움츠러 들게 만드는 2011년을 한달 남짓한 11월의 마지막 주.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평온하게 만드는 화진포호수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대진중고등학교 교정 및 해송관에서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해송제가 지난 28일, 29일 이틀간 열렸다.

대진중고등학교 학생회가 주최하고 대진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총동문회, 학부모회, 고성문화원이 후원한 이번 해송제에서 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열중하며 틈틈이 연마한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첫날인 28일에는 풍물패 갯마당이 펼쳐지는 민속놀이공연과 소프트볼, 축구, 통일기원연날리기 등의 체육대회 및 미니올림픽이 진행됐고, 국내·외 가수들의 노래와 댄스를 겨루는 가요·댄스



대진중고등학교 교정 및 해송관에서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해송제가 지난 28일, 29일 이틀간 열렸다.

경연대회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특히 가요·댄스경연회에서는 티아라, 소녀시대, 비스트, 비온세 등 국내·외 유명가수들의 노래와 댄스를 선보이며 그동안 숨겨왔던 끼를 아낌없이 발산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관람객들의 큰 호응과 환호성으로 축제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다.

둘째날인 29일에는 경동대학교 조진관교수를 초청해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이라는 주제의 강연회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닭꼬치, 분식, 일일찻집, 패스트푸드 등을 마련해 먹거리 장터를

열었다.

또 쿠키클레이, 풍선 아트, 칼라비즈 등을 직접체험해보는 테마체험교실이 열렸고, 학생, 학부모 등이 함께하는 해송인의 밤이 해송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아울러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출품한 미술, 교과, 사진 등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마당이 28일과 29일 이틀간에 열렸다.

이틀간에 축제 기간 중 하이라이트는 단연 마지막을 장식한 해송인의 밤이었다.

이날 비가 내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해 시, 사물놀이, 스포츠댄스, 가요, 패션쇼, 학부모 중창, 바이올린·플루트 연주 등을 관람하며 뜨거운 열기가 이어져 추위를 무색케 했다.

특히 스포츠댄스팀이 화려한 의상과 분장으로 출연하는 순간 관람객들은 공연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와 열화와 같은 성원이 이어졌다. 댄스연기를 펼칠 때 함께 박수를 치며 공연장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만들었다.

또한 학부모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눈뜨는시절, 10월 어느 몇

진 날을 부르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여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아울러 학부모 5명으로 구성된 씨니 팀은 댄스공연을 펼치며 학생들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해 관람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틀간 열린 이번 해송제를 통해 학부모들은 어느 덧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흡족해 하는 표정으로 학생들의 공연을 시종일관 눈을 떼지 못했고, 학생들은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서로가 함께 호흡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원광연 기자

중·고 장학금 선발 세부기준 마련 권고

“장학금 일부 교직원·고소득층 자녀 부당 지급” ... 장학금심사위 외부 위원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중·고교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 대상 학생의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장학금 명부를 별도 작성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록 하며, 교육청의 장학금심사위원회에는 반드시 외부 위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중·고교의 특별장학금이 일부 교직원과 고소득층 자녀 등에게 부당 지급되거나, 기

업체나 독지가가 후원하는 외부 장학금 대상자도 임의 추천되는 등의 현행 장학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광역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특별장학금 및 외부장학금이 지급 취지에 맞

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 장학금 선발 관련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 장학금 선발 시 복수 학생 추천, 구체적인 회의록 작성, 추천서식 보완 등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청 장학금심사위원

회 위원 구성 시 반드시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원칙적으로 집합심사 ▲ 각종 장학금 추천명부를 작성·보관하고 장학금에 대한 지도감독 지침 등 장학금 관리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장학금 선정이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돼 장학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